

부모의 인식을 통해 본 가정 내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가능성

진 미 정(서울대 부교수) · 서 현 석(서울대 연구부교수) · 이 현 아(서울대 연구부교수)

본 연구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통합적으로 인간됨의 교육, 곧 인성교육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인성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부모들이 인식하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정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합 혹은 부정합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부모 자녀관계와 학부모 문화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7월에 걸쳐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어머니 44명과 아버지 10명 등 총 54명에 대해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여 문서로 자료화하고, 전사된 면접 자료를 통해 주요 중심 주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도출하였다.

먼저 부모들이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목표는 원만한 사회적응, 행복한 자아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원만한 사회적응은 배려와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행복한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 개성,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자아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성과 중심, 일 중심, 학업성취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이러한 가정 내 인성교육의 핵심 목표들이 본래적 의미를 벗어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만한 사회적 적응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의 관점이 아닌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어울림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행복한 자아실현은 개인의 고유한 특질, 개성, 능력을 실현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공부나 성적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서열화된 자아실현을 의미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력 형성이라는 목표는 가정교육에서 주변화되고 있으며, 부모 자신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모호하고 유동적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부모로서의 자신의 양육방식과 가정교육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공부 때문에 자녀들이 가진 장점이나 잠재력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성찰의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인성과 학업이 병행하기 어려운 어떤 것, 혹은 상호 대칭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가정 내 인성교육은 타인배려, 소통, 책임, 자기주도 등의 인성의 주요 요소들을 단순히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인정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서 가정교육이 시작된다. 인간의 품성을 추구하는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며, 이러한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적 발달과 도덕적 발달이 함께 가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본래 자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